

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이라는 주제하에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1) 21세기 아시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비전은 무엇이며, 그 비전은 20세기의 비전과 어떻게 다른가?
- 2) 사회복지사로서, 혹은 사회복지 교육자로서, 우리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한 목표 설정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 4)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5) 이전의 수많은 시도에도 해결되지 않은 빈곤문제에 대응할 방책이 있는가?

이상으로 위 대회 기조연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강연에서 지적되었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

들이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빈곤문제 및 범국가적인 자연재해 혹은 질병의 확산 등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1세기의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의 결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힘써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그동안 사회복지체계의 많은 부분에 여과없이 적용되어 왔던 서구 사회의 시스템을 아시아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적 토대 및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고유한 패러다임으로 승화시키는가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사 및 교육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사 교육자 대회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 21세기 아시아지역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목표, 정책 과제에 대한 많은 토론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Pre-Conference II〉 Dr. Joseph Himle (University of Michigan)

정신질환 대상의 실증적 치료개입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

글 / 박수정(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Dr. Joseph Himle 교수는 강연을 통해 실증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기술’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라고 문제를 호소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분명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생각과 일상생활방식을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그때, 클라이언트와 단순히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지행동치료(CBT)라든지, 조금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제

한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이 전통적인 방법론을 배워왔고, 또한 옛날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줄곧 새로운 방법론들은 나오지만, 그것의 재교육에 대한 저항감이라든지, 거부감 등의 문제로 사실상 새로운 방법론의 보급은 쉽지 않다. 곧,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훈련’ 받은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그의 오후 강연 첫 머리에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도시 보다 농촌이나 오지 등에서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잘 훈련된 사회복지사는 부족할 뿐 아니라, 훈련받은 사회복지사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대부

분은 대도시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이나 오지 등에서 그들의 활발한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촌 등에서는 소수의 의사들이 치료와 개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들의 면담이나 치료시간은 사실상 10여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어떠한 사회복지사의 대체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클라이언트가 대도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찾아온다는 것은, 장거리의 문제와 나이 많은 클라이언트, 몸이 불편한 클라이언트의 경우를 생각해보았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감옥에 있거나 당뇨 등의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또 다른 '기술'의 도입을 제안한다. 즉, '기술'을 통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Dr. Joseph Himle 교수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기관'에 찾아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라며, 이는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과 아직까지 산재되어있는 사회적인 낙인 때문이라 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여 개입방법을 전달하는 방법들로서 전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화상회의를 제시했다.

전화를 통한 개입방법의 전달은, 비용이 적게 들고, 클라이언트가 좀더 솔직해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치료관계가 좋은 이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인터넷을 통한 개입으로, 그는 최근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 "Good Days Ahead" (DVD에 제공됨)을 제시하면서, 임상적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비디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치료세션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보고 들으며, 직·간접적으로 치료받게 될 것이라 했다.

클라이언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일상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그를 확인해주고, 적절한 답변을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한 클라이언트에게 집중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의 한 예로 12주 프로그램 진행결과, 우울증이 상당히 호전된 클라이언트도 있었다고 한다.

화상회의는 실시간 사회복지사가 카메라를 보고 클라이언트와 모니터를 통해 대면하며, 일반적 세션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광장공포증의 클라이언트의 경우 효과적이고, 사회불

안증, 복합불안증, 우울증, 외상후 장애 등을 겪는 클라이언트에게도 효과적이다.

곧, 이렇게 제시된 3가지 개입방법의 전달은, 클라이언트가 적은 낙인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거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집을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관련된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개입단위가 가족이 될 경우, 그들을 한 자리에 쉽게 모을 수 있다는(곧, 예를 들면, 모니터 앞에 그들을 모두 모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다 솔직해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감 또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전화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느낌은 어때요?" 등을 물어봐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나 이해정도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등의 질문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를 통한 개입방법은, 보험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료화 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컴퓨터를 통한 치료방법 역시, 그것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지체나 컴퓨터 사용방법에 익숙치 않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치료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도 있다. 또한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안전보장(예: 가정폭력 사례경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개입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보다 클라이언트와 그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Dr. Joseph Himle 교수는 이 모든 것이 15년 뒤에는 좀더 보편적으로 그려질 사회복지라며, 그 앞을 내다보았다. 특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것이 단지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 어려울 뿐' 이고, 앞으로 그것의 보급과 사용, 그리고 사회복지 안에 활용될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한다. 키보드가 아닌, 입으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세상이 머지않게 다가온다면, 사회복지사는 또 다시 그 방향성에 있어 '좀더 효과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4년 만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사 교육자대회. 그 첫 강의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변화하는 세계, 그 안의 사회복지가 갖게 될 도전과 자극, 그리고 시작이었다.